





박상용 요한 신부 | 교구 성서사도직 담당

# 생활 속에 새겨진 말씀

요즘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휴대 전화 한 대씩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디에 있든지 또 원하면 언제든지 서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편리한 점도 있지만 하나씩 가지고 있을 정도로 휴대 전화가 많기 때문에 (꾸며낸 이야기인지 실제로 있었던가는 모르지만) 장례식장에서 울어 대는 ‘와 이리 좋노~♪’ 벨소리, 조금 늦어진 교중미사가 마칠 즈음에 ‘열두 시!’라고 울어 대는 시간 알림 소리처럼 예상치 못한 당황스런 일들이 때때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식구가 4명이라면 휴대 전화기는 4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 성경은 몇 권 있습니까? 식구들 각자가 ‘내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흔히 하는 대답은 “우리 집에 성경 있어요,” “엄마 성경 있어요.”입니다. 손이 닿는 곳에 성경이 있어도 읽을까 말까 하는 판에 책장에 잘 꽂혀있는 ‘우리 집 성경’, 엄마도 잘 안 읽으시는 ‘엄마 성경’을 읽을 마음이 어떻게 생기거나 하겠습니까?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누가 “성경 구절 하나 말씀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퍼뜩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긴 성경 구절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려움이나 커다랗고 걱정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간직하고 있으면서 힘이 되어

줄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사실 성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데 그쳐버리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서 기쁨 댄 그 기쁨의 원인이, 슬플 땐 위로가, 두려움이 덮쳐 올 때에는 굳게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어두움으로 둘러 싸여 있을 때에는 지혜의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서 주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서 주간이라고 해서 이 한 주간만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을 먹고서도 또다시 때가 되면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 것처럼 먹고 또 먹어야 하는 양식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성서 주간 동안에는 성경 속에 담긴 말씀에 대한 열정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먹어도 그만, 먹지 않아도 그만인 그런 양식이 아니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양식으로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열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각자가 자신의 성경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과의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는 말씀을 만난다면 그 구절을 암기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암기해 둔 그 구절은 그 사람 안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새롭게 말씀을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성경을 가지고 말씀에 푹 젖은 한 주간 지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해 특집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가르침 ⑤

##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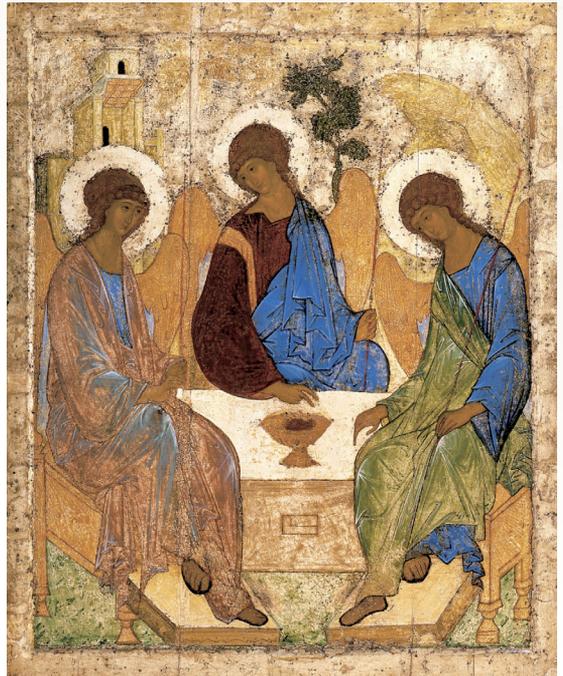
공의회는 교회가 무엇보다 신비이고, 이 신비는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당신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주시는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일치가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은 바로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모습입니다.

###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첫째로 이 백성이 자기 들끼리 좋아서 모인 집단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부르셔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만이 이 백성의 주인이시고 이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느님께서 부르셨다는 이 자격 말고 다른 자격으로 하느님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 백성에 가입하는 것은 오로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세례성사의 은총으로만 가능합니다.

### 하느님의 자녀라는 공통된 신분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또 이 백성에 가입한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 앞에 평등하다는 뜻을 갖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람들을 모든 시대와 민족으로부터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지위보다 더 뛰어난 ‘하느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신분은 하느님 백성 모두에게 공통되는 것입니다. 세례성사의 은총은 “주교로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교회헌장 12항) 세례 받은 모든 이들을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느님 백성의 일



성 삼위일체 -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드러난 삼위일체의 신비이다.

원으로 만듭니다. 이 은혜에는 남녀노소의 차이, 인종과 민족의 차이, 빈부의 차이가 없습니다.

### 은총으로 하나 된 공동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특히 중세 시대에는 교회도 세상의 풍습에 영향을 받아 교회를 수직적인 계급 사회로 여기곤 했습니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의 구별은 말은 직분의 차이이지 계급의 차이가 아닙니다. 교회도 조직을 갖춘 집단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조직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하느님께 부름을 받아 모인 이 백성은 하느님의 자녀라는 은총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이고, 그 은총은 수많은 차별과 장벽을 넘어 사람들을 일치하게 합니다. **247**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 서준홍 신부의 성모님 이야기

## 세계적인 성모 성지, 성모당

교구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미사가 봉헌되고 행사를 열어 온 대표적인 장소가 성모당입니다. 하지만 성모당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성모님의 성지로 공식 인정된 것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 3월 27일, 교황청의 교령에 따라 성모당은 로마의 성모대성전과 영적인 유대를 맺은 성모님 성지가 되었고 이곳을 순례하는 신자들에게 전대사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모당이 교황청에서 인정한 공식 순례지가 되고 성모당에서 이루어지는 예식이 필요하게 되자, 교구에서는 2010년 2월 5일 처음으로 성모당 담당 사제를 임명했습니다(현재 서준홍 마티아 신부). 그 이래 성모당에서는 주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오전 11시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고, 미사 전에 고해성사를 보고 묵주의 기도를 함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성모당에서 전대사가 주어지는 날은 1년에 모두 7일인데 다 성모님과 관련된 축일입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2월 11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3월 25일), 성모대성전 주보축일(8월 5일),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 성모당 봉헌 축일(10월 13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12월 8일)에 성모당을 순례하고 아래에 나오는 조건을 채우면 전대사를 얻게 됩니다. 이 7일이 아닌 다른 날에도, 1년에 한 번에 한해 어느 날이든 자유롭게 선택한 날에 단체로 성모당을 순례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대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정한 통회를 하고 고해성사를 보아야 하고, 성체를 모시며,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



전대사 성지인 성모당과 성모대성전간의 영적인 유대를 선포하는 교령

도를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모당에서 거행되는 미사나 신심행사에 경건하게 참여하고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적어도 한 번 바쳐야 합니다.

위령성월입니다. 전대사를 받아 스스로 그 은혜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많은 교우들이 자기 자신 보다는 돌아가신 조상과 부모님, 또는 친지들의 영혼을 위해 전대사를 청합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이름 모를 연옥 영혼에게 자기가 받은 전대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달리 특별한 일을 할 필요가 없고, 그저 주님께 이 은혜를 연옥영혼에게 양보하겠다고 속으로 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25**

햇살 담은 이야기 - 마음으로 읽는 삶의 단상

## 임금님의 호출

밤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대문을 마구 두드렸습니다. 깜짝 놀란 주인이 “밖에 누구요?”하고 물었습니다. 문 밖에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전하러 왔소. 임금님께서서는 당신을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주인은 걱정 때문에 한숨도 자지 못하다가 친구와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마침 소중한 친구 셋이 있었는데 그 중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다 생각되는 친구를 먼저 찾아가 임금님께 같이 가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나는 오늘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네. 다른 친구에게 가보게.”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거절을 당한 그는 몹시 섭섭했지만 하는 수 없이 두 번째 친구를 찾아 갔습니다. “자네 말대로 함께 가기는 하겠지만 나는 대궐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네.”

둘째 친구에게도 실망한 그는 서둘러 셋째 친구의 집으로 찾아 갔습니다. 그 친구는, “자네, 정말 오래 간만이군. 자네가 나를 찾아오다니 뜻밖이군. 그런데 자네 얼굴이 몹시 안 좋아 보이는데 대체 어떤 일인가?”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 번

째 친구의 친절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임금님의 명령과 친구들의 반응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세 번째 친구는, “여보게, 걱정 말게나. 자네같이 착한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임금님이 벌을 내리시겠나. 내가 함께 가서 혹 잘못된 일이라도 있다면 내가 잘 말씀드려 보겠네. 자, 이제 진정하고 나하고 가보세. 시간이 늦으면 안 되니까.”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펄 듯이 기뻐하며 대궐로 향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이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임금인 하느님 앞에 서게 되는데 세 친구 중 첫째 친구는 ‘재물’입니다. 살아 있는 동안 사람에게는 재산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되지만 재물은 사는 동안만 필요하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 친구는 ‘일가친척’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무덤 속에 따라 갈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 앞에까지 함께 가는 셋째 친구는 ‘선행’입니다. 착한 행실은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죽은 뒤에도 그와 함께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간증**

### ■ 금주의 성인 성녀 체칠리아



#### 성녀 체칠리아 (11월 22일)

박해시대에 로마 귀족가문에서 태어나신 체칠리아 성녀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믿음이 깊었는데 혼인한 후에는 외교인 남편을 개종시키셨으며, 부귀영화를 버리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평생 동정을 지키셨다. 성녀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발되어 참수형에 처해지셨는데, 목에 칼을 세 번이나 맞고도 떨어지지 않아 목이 베인 채로 3일 동안이나 고통을 받다가 운명하셨다고 한다. 성녀께서는 흔히 비올라나 작은 오르간을 연주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며 음악과 음악인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고 있다.



# 신앙의 해 기념 영성사진 콘테스트

##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요한 1.14)

신앙의 해를 맞이하여 대구주교에서는 믿음의 눈으로만 알아볼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을 찾는 영성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전례와 성사 안에,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들 안에, 서로 사랑하는 형제들과 손수 지으신 피조물들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담아 주세요!

### 1) 피사체의 종류

- 가. 전례와 성물(제대, 감실, 고상, 성당, 성상과 성화, 미사와 성사, 신심행사 모습 등)
- 나. 사람들(성직자, 수도자, 교우들, 일반인 등 누구라도 좋음)
- 다. 자연(풍경과 정물)

2) 참가자격 : 대구대교구 내에 교적을 둔 가톨릭 신자

3) 공모기간 : 2012. 11. 25. ~ 2013. 10. 31.

4) 사진 규격 : JPG파일(300DPI 해상도 기준 1,600×1,200~3,500×2,625픽셀)

5) 출품 방법 : 콘테스트 공식 사이트 (<http://contest.daegujuho.or.kr>)에 업로드

### 6) 출품 내용

- 가. 사진 파일 (컬러·흑백 모두 가능)
- 나.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한 한글 파일
  - \_ 이 사진에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경위나 이유
  - \_ 피사체에 대한 설명
  - \_ 출품인의 본당, 이름, 세례명, 연락처

7) 출품 제한 : 1인당 월 3점

(타 공모전에 입상작 또는 표절작품은 응모불가)

심사 기준, 시상 내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콘테스트 공식 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 ■ 교구장 대주교님의 자선 기증품 경매 (평화방송 주관 ‘나눔의 기적’)

- ▲ 경매참여방법 : 전화(02-2270-2513, 2516) 또는 이메일([pbclove@pbc.co.kr](mailto:pbclove@pbc.co.kr))로 접수
- ▲ 마감 : 12월 5일(수) 오후 6시
- ▲ 입찰 가격 : 500만 원 (2012년 11월 20일 현재)
- ▲ 입찰현황은 평화신문 누리방 <http://web.pbc.co.kr/newspaper> ‘나눔의 기적’ 코너에 게시

### 언제나 죽음을 잊지 말고

박성규 엘리지오



## 성소 | 피정

### 바뇌의 성모 기도회 17주년 대피정

일시: 11.29(목) 9:30~16:00

장소: 삼덕성당

미사·강사: 오상철(T.아퀴나스)신부

문의: 427-7543

###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재속3회 지원자 예비모임

일시: 11.26(월) 13:00

장소: 꾸르실료 교육관

문의: (051)634-4820

(010)6711-4819

###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12.9(일) 14:00

장소: 과천본원

문의: 김 라우렌시아 수녀

(010)5449-3166

### 마리아는 길을 떠나 (겨울성소피정)

기간: 12.28(금)~30(일), 2만 원

장소: 부산 양정 (청원소)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주관: 마리아의전교자 프란치스코회

문의: 이 리디아, (010)2570-0939

###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수도 생활 체험 피정

기간: 12.14(금)~16(일)

대상: 35세 미만 미혼여성 / 3만원

문의: 황안젤라수녀

(010)5313-0241

###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일시: 11.27(화) 14:00, 신암성당

11.28(수) 10:00, 죽도성당

11.28(수) 14:00, 성토마스성당

문의: (02)3673-2525

## 교육 | 모집

### 요셉발건강교회교육 (발은제2의심장)

일시: 매주 토 14:00~16:00 (10회)

회비: 교재·도구포함 10만 원

문의: 476-7774

<http://www.footfather.com>

### 가톨릭근로자회관

### 12월 영어성경공부반 모집

개강: 12.4(화) 19:00~20:30

월회비: 3만 원

과정: 창세기, 마르코 (화, 목 저녁)

문의: 253-1313 / (010)2578-5535

### 재능나눔 자원봉사자 모집 (중독상담)

모집기간: 12.14(금)까지

대상: 상담영역 공부하신 분

문의: 대구가톨릭칼로올상담센터

638-8778, 3778

### 노장년층 수도생활 체험학교

기간: 12.29(토) 16:00~31(월) 13:00

장소: 성 베네딕도 왜관 피정의 집

대상: 45~75세 성인 남녀 65명

참가비: 7만 원

접수: (054)971-0722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미혼모 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acc.or.kr>

## 미사안내

구미지역 밀알회 미사	11월 26일(월) 오전 11시	도량성당
군중후원회 대구지역 월례미사	11월 26일(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오순절 평화의 마을 후원회미사	11월 26일(월) 오전 11시	수성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1월 27일(화) 오후 2시	계산주교좌성당
김천지역 학교 복음화를 위한 미사	11월 28일(수) 오후 7시	김천항금성당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 멋진인생 에스 테릭 두피센터

SkinCare / Body / Scalp 탈모두피

자점) 남구, 대곡, 동호, 두류, 만촌, 범어, 신격, 서면, 성서, 시지, 칠곡3지구, 침산, 구미롯데

상담예약 1588, 8850

### 한일따로식당

저하철 중앙로역 하나은행 뒤편

김영일(라자로)  
유옥상(도미니카)

☎(053)254-0028

### 수업내과

당뇨 / 고혈압 / 신장질환 전문  
공단건강검진 / 위,대장 내시경

### 인공신장실

경북대병원 외래교수 김건현(라파엘)

상인역 ☎(053)642-7575

30년 전통의 전자파없는 돌침대

### (주)장수구들옥돌침대

2인용 옥돌침대 88만원

1544-3837  
(053) 656-9990

앞산네거리 (보훈청 옆건물)

대표 : 소춘호(레오)

www.appleuro.com

### 에플비노기과

비노기과 원장 강 일(베드로)  
전문의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 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세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 김동영 소아청소년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진단검사의학과, 가정의학과  
야간진료, 일요일 진료

북구 관음동 칠곡 IC 사거리 옆 (현암수정아파트 상가 1층)

(053)323-6006  
<http://www.soagwa.net>

원장, 전문의 : 김동영(요한)

신력동 대우아파트 앞 / 대현전용주차장 옆비 / 여성친화병원

### 한글병원

한글병원 의료진

내시경,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소장내시경, 소장내시경, 소장내시경, 소장내시경

www.hangmuns.com 959-7175

위·대장·항문 클리닉·건강검진·내시경·암검진

###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 의·원장 정순우(요셉)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故)이상호 (베드로) 신부님**

**1주기 미사**

일시: 11.26(월) 11:00

장소: 성직자 묘지

일시: 12.8(토) 18:30 (무료)

문의: 425-5185 / (010)2658-5185

**교육 | 모집**

**주교회의 여성소위원회 전국세미나**

일시: 11.28(수) 14:00

장소: 꾸르실료교육관2층 대회의실

기조연설: 김정우 (사도요한) 신부

주제발표: 임순희 (다리아) 수녀

문의: 교구 여성위원회, 254-6115

**관덕정 영성 특강**

일시: 12.1(토) 16:00

강사: 강석진 신부 (한국순교복자  
성직수도회 순교영성연구소장)

문의: 관덕정, 254-0151

**가정 안에서의 자녀교육 기부 특강**

내용: 자녀교육을 위한 주제별 특강  
(공문 '천대교 2012-0125' 참고)

대상: 본당단체 (자모회 등)

유치원 (학부모 대상)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3

**채용**

**산자연학교 주방 조리원 모집**

대상: 숙식 가능자

문의: 산자연학교  
(054)337-0350

(010)3523-3473

**2013학년도 학교법인 선목학원  
중등 교사 및 기간제교사 채용**

기간: 11.28(수)~30(금)

자세한 사항은 법인 홈페이지 참조

http://dgsunmok.or.kr

문의: 660-5161

**월명성모의집 직원채용**

분야: 요양보호사, 조리원, 법인사무원

문의: (054)435-5579(기숙사 가능)

**2013 마리아유치원 반증설에 따른  
신입, 경력교사 채용**

자격: 유치원2급정교사, 몬테소리

교육과정(AMI)이수 (경력교사 해당)

문의: 745-2091

**안내**

**성탄위문품 신청**

군중후원회에서 성탄절을 맞아 군  
위문품을 보낼 예정이오니 신청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11.28(수), 접수: 본당사무실

대상: 신자녀녀 현역사병(의경, 전경포함),

훈련병, 교육병, 부사관, 장교 제외

**교구법원 공시 (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

에 대해 문의 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이종호, 박귀현 (요셉피나)

**행사 | 모임**

**인평본당 견진**

일시: 11.25(일) 11:00

**범어성당 부설**

**마리아유치원 축복식**

일시: 11.25(일) 15:00

주례: 조환길(타대우) 대주교님

**이문희 대주교님과 함께하는  
페이아르 샤르댕 연구회 공개강좌**

9회 강좌: 11.27(화) 16:00

장소: 예수성심사녀회 성심교육관 (대명동)

주제: 페이아르 드 샤르댕의 문화관

강사: 백경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대구가톨릭음악원 성음악 발표회**

일시: 12.3(월) 19:30

장소: 동구문화체육회관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2013 말씀과 함께 - 일러스트 전시회**

기간: 12.3(월)~13(목)예쁜엽서SET증정)

장소: 바오로딸 서원(동성로공평동)

**무지카 우니카 아카펠라 음악회**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성계 내과>  
내과 전문의 6인 진료 **765-3771**

심장·순환기, 소화기·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5대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오로), 김영섭(베드로), 김지영(대건안드레아)  
들안길 네거리 ~ 황금성당 사이

국가등록업체·보증보험가입업체

**노블코리아**

**미혼 남자의 백년가약! 결혼**

미팅횟수 채용이 아닌 성호에 주력!  
상담수로증 이수자인 사회복지사가 상담함.

**053)639-8998** 박영주(젤마) 박요안나

상인점 홀플러스 맞은편 / 범어동 경신교 입구

**미소인치과**

원장 이종현(프란치스코) 송선희(안나)

지하철 범어역 4번 출구

전화상담 **053)752-7575** 화, 목  
아간진료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렌리교),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백두정형외과**

어깨 관절경 수술전문

정형외과전문의/의학박사/원장  
배덕두(아오스당) 배상근(베드로)  
소아정소장외/신생아세부전문의/의학박사/원장  
배상영(마카렐라) www.baekduos.com

**425-5919** 평일 09:00~19:00  
동인치안센터 건너편

라식, 백내장 수술 전문안과

**대구연세안과**

아이라식<sup>PLUS</sup>, 안내렌즈, 노안수술

의학박사  
현, 연세대의료교수 원장 박종원(소시모)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 626-8881~5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서상운(안젤로)  
송정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대구안과**

마이크로 라식·에피 라식·알티산 렌즈  
백내장 수술·녹내장·사시교정수술

원장 이호성(아오스당), 조영수(다미아노)

☎ (053)651-2233

서부정류장에서 본리네거리 방향 300m 좌측